

아름답고 깨끗한 무주 만든다

도시 숲·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폭염완화 효과 등 기대

무주군이 '도시 숲'과 '가로수' 조성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을 살리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효과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 숲은 무주읍 당산리 일원의 자투리 공간에 수국과 황금사철 등 소규모 관목과 꽃을 심어 조성하며, 가로수 조성사업은 구역(1구역-부남면 대소리 급강변 도로 / 2구역-삼공삼거리~뽕재터널)을 나눠 이팝나무 등을 심는 것으로 진행된다.



무주군이 '도시 숲'과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산림휴양팀 김승준 팀장은 "도시 숲과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연생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하지전정, 전지전정 등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경관과 환경, 그리고 건강을 모두 지키는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무주읍 생활 권내에 조성돼 있는 도시 숲에 대한 관리도 진행

한다는 계획으로, 가로수 관리단과 공공근로, 병해충 예찰단원 20여 명을 투입해 무주중학교~무주읍 행복복지센터, 싸리재터널, 당산마을 앞 교차로 등 3곳에 심겨진 장송과 조형소나무 등 96주에 대한 순치기와 전정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6개 읍면 곳곳의 도로변 풀베기와 고사 가로수 제거 작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무주를 가꾸는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료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분소·안성·무풍 분소 등 3개 임대 사업장서 모두 가능

무주군은 영농철 농가 편의 증대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행료,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대금 등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2019년도 사용 신청 3,666건에 임대료 수 4,202일로 2018년 대비 118% 증가하는 등 이용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정부 벼 보급종 채종단지 2년 연속 선정

진안군은 정부 벼(해답쌀) 보급종 채종단지에 백운면 석전단지가 2년 연속 선정되어 15ha, 80톤의 보급종을 계약재배하게 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대상지역은 지난 13일 채종단지 선정심의회를 거쳐 석전단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채종단지는 국립종자원에서 농가와

계약을 맺고 정부 보급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공공비축미 수매기(특등 기준)의 20%를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박상일 석전단지 대표는 "2년차 채종단지에 선정된 만큼 첫해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매뉴얼을 이행해 정부보급종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생력화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과 수확 후 건조, 보관시설 구축을 통해 벼 보급종 생산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재난기본소득” 지원해야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 “세금감면 등 실질적 지원책 강구” 강조

전춘성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지속되어짐에 따라 소비위축으로 중소기업 및 음식점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일자리 중단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며 “작금의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정부는 주민들에게 세금감면과 공공요금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춘성 예비후보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전주시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금의 체감경기는 IMF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부터 소득이 절박에 부딪힌 주민 모두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보육 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보육료·양육수당 등 주so지 관계 없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서 진행

진안군은 전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어디서나 주so지와 관계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so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과 함께 지원을 하게 된다.

보육료, 양육수당 관련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육료 등 지원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무 시간 중 아동의 주so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 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 불편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전면 취소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개최하던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년 진안고원시장 광장에서 개최되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축소하여 각 읍·면 사무소에서 대추·사과 묘목 총 2,000본을 세대수에 비해 오는 23~27일 배부할 예정이다.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 추세에 따라 감염 유행경로를 예측할 수 없어 전염병 차단을 위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본격 추진

장수군은 도로침하(싱크 홀) 예방과 침수 대비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장수읍·장계면 시가지 일원 20년 이상 된 기존관로에 대한 CCTV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0.65km)을 긴급보수구간과 일반보수구간으로 선정해 정비한다.

사업은 국비 등 87억8300만원 을 투입해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장여건에 따라 굴착 또는 비굴착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김성현 소장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로침하(싱크 홀)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공사 추진 기간 교통 통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군에서도 꽃샘추위 등에 따른 저온피해 방지를 위해 품목별 생육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가 지원 및 농가 현장지도도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작물 저온피해 철저한 사전 관리 당부

장수군, 품목별 생육상황 모니터링 강화·농가 현장지도 등 실시

장수군은 불철 저온현상으로 인한 인삼, 양파, 사과 등 농산물 저온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17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대비 2.0℃ 정도 높아 과수의 경우 개화시기가 전년 대비 일주일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인삼 등 생육 또한 10~15일정도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높아진 봄기온으로 개화 시기가 빨라져 꽃눈이 발아하거나 개화된 상태일 경우 갑작스런 저온현상이나 꽃샘추위는 병해 피해로 직결돼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온·늦서리는 열매를 수확하

는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군은 품목별 생육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가 현장지도도를 펼쳐 불철 병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3월말~4월초 꽃샘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저온·늦서리 피해예방을 위해서 농가는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군에서도 꽃샘추위 등에 따른 저온피해 방지를 위해 품목별 생육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가 지원 및 농가 현장지도도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